





만족하고 있다고 보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 현대식 건설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분히 비판적... 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立場일 것이다. 그리고 비판을 할

것이 있다면 때가 늦기전에 여론을 일으켜서 그 방향을 수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현실참여의 뜻이 될 것이다.

문제를 다시 제안을 한다면 오늘 우리 눈 앞에 선 고층건물의 文化性에 대한 이야기이다. 建築은 하나의 文化요 엄연한 예술의 표현이다. 그저 세워지면 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文化性이 있게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다. 가령 먼저 인용한 외국문화인들의 서울行象評같은 것인데 「제2의 뉴욕」「아세아의 뉴욕」이란 평구에는 두개에 다 「뉴욕」이란 미국도시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뉴욕」에다가 비친다는 것은 얼른 들으면 서울近代相을 격찬하는 말같기도 들리지만 또한편 생각해보면 어딘지 남의 도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냐. 「뉴욕」의 이미테이션, 그 亞流같은 印象이라는 비꼬아하는 말일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현대도시라고 할때에 그 일반 특징이 반드시 고층건물의 도시란 뜻은 되지 않는 것 같다. 고층건물이 서는 地質의 조건도 있겠지만 대체로 구라파의 도시들의 경우는 모두가 전통적인 건물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보통 三, 四층의 건물들이 고작이지 그렇게 높은 건물을 잘 볼 수 없다. 내가 西伯林에 들어가서도 느낀 것인데 전쟁때문에 파괴된 뒤에 새로 서는 건물들도 「유로파」라는 백화점 건물이 하나 二층으로 세워졌을 뿐 판것들은 모두가 三, 四층 정도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면 고층건물의 도시란 주로 미국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곧 서울의 고층건물거리가 뉴욕의 아류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이것은 문화 예술의 독창성에서 볼 때는 그렇게 명에스러운 평가는 못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층건물은 물론 좋다고 보지만 그 고층건물도 어딘지 韓國的인 文化의 傳統을 자랑으로 삼고있는 것들이 되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고층건물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다니다가 그때마다 유치한 인상을 가질 수 없는 기념탑으로서 제2漢江橋를 건너다가 그 무슨

유엔軍참전기념탑의 門을 드나들때의 감상이다. 外國사람들이 서울수도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관문이 하필이면 저래야 할까 하는 생각, 차라리 南大門같은 전통적인 관문이면 더 한국다운 인상을 안겨주지 않을까하는 감상이 든다는 것이다. 다른 고층건물들에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미국식의 것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어느 한구석, 가령 지붕에 청기와라도 올려서 현대식양복에 갓을 씌우는 식이라도 좋으니 무슨 전통적인 것을 가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차츰 우리것다운 고층건물의 서울도시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내가 우리 서울의 고층 건물상을 무조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人口分布처럼 서울에 집중하는 현상에선 고층건물은 인구정책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방향일 것이다. 오는 더 본질적인 뜻에서 생각할 때에 먼저 말하듯이 건축은 예술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의 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실제적인 원료에서만 고료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문화를 창조하는 창의성에서 반영되고 재고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다. 전진하다가 가끔 뒤돌아다보고 반성을 해보고 하는 일이 정말 원대한 시야에서 볼 때에 올바른 건설의 길을 걸어가는 뜻이 될 것이다.

